의미가 다양한 본초 효능 표현에 대한 고찰

- 본초의 殺蟲 효능을 중심으로 -

김상현[#], 김상균, 남보령, 이명구, 이승호, 장현철^{*}

한국한의학연구원 미병연구단

A Study on Ambiguous Expression for Efficacy of Medicinal Material

- Focusing on 'Salchung[殺蟲]' -

Sanghyun Kim[#], Sangkyun Kim, Boryeong Nam, Myeong-gu Lee, Seungho Lee, Hyunchul Jang^{*}

Mibyeong Research Center,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ABSTRACT

Objectives : Through this study, it would be confirmed that specific expression for efficacy of medicinal material has multiple meanings. And through the methodology to determine the multi meaning, it could be contributed to lighten ambiguous expressions for efficacy of medicinal material.

Methods : The premise is that the efficacy and treatment target data are related to each other. Word cloud has been used analyzing the efficacy and treatment target data for medicinal materials. Then classic and modern documents were analyzed by the search.

Results : Even though searching all related references as well as comparing the efficacy and treatment target data were done, some medicinal materials having 'Salchung[殺蟲]' as an efficacy are not expected to treat the disease associated with the parasite. Through the analysis of classic and modern documents, it was found that 'Salchung[殺蟲]' is not used only as a means of anthelmintic efficacy. But through the above analysis method some medicinal materials having 'Guchung[驅蟲]' as an efficacy are expected to treat the disease associated with the parasite, and 'Guchung[驅蟲]' seems to be almost used as a means of anthelmintic efficacy.

Conclusions : If a certain expression for efficacy of medicinal material is used as a single meaning obviously, ambiguous expressions need to be clear. And if a certain expression for efficacy of medicinal material seems to have multiple meanings, the additional informations are to be supplemented for exact wording.

Key words : Clinical efficacy, Ambiguous expression, Salchung[殺蟲], Guchung[驅蟲]

서 론

한국한의학연구원 주요사업 중 하나인 '한의 지식 포털 구축' 과제를 진행하면서 약재에 관한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그 과정 중 하나로 약재 온톨로지 DB¹⁾를 활용하여 효능과 주치증상을 국역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그런데 그 작업 과정 중에 효능 용어가 단일한 의미로 쓰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측되는 부분이 몇몇 발견되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殺蟲'이다.

殺蟲이라는 효능을 한국전통지식포털에서는 '인체 내의 기생충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고²⁾, 『동양의학대사전』에서도 殺蟲을 驅蟲의 의미로 한정짓고 있다³⁾. 그러나 살충의 사전적 의미가 벌레나 해충을 죽인다는 뜻이기에 해충이나 벌레의 개념을 기생충으로 한정지어 생각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고, 殺蟲 효능이 있는 약재가 실제로 기생충 질환에만 쓰이는지에 대한 의문도 들었다. 예를 들어 '殺蟲' 효능을 가진 藜蘆의 경우 주치증상에 기생충과 관련된 증상이 보이지

*Corresponding author : Hyunchul Jang, Mibyeong Research Center,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1672 Yuseong-daero, Yuseong-gu, Daejeon, Republic of Korea

· Tel : +82-42-868-9364 · Fax : +82-42-861-9421 · E-mail : hcjang@kiom.re.kr

#First author : Sanghyun Kim, Mibyeong Research Center,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1672 Yuseong-daero, Yuseong-gu, Daejeon, Republic of Korea

· Tel : +82-42-868-9549 · Fax : +82-42-861-9421 · E-mail : kshr@kiom.re.kr

· Received : 1 June 2015 · Revised : 16 July 2015 · Accepted : 16 July 2015

않고, - 藜蘆의 주치증상은 疥癬, 久瘡, 頭痛, 泄利, 中風痰涌, 風驚癇疾, 黃疸, 喉痺, 鼻瘻, 惡瘡이다 - 한약재명(Veratri Nigri Rhizoma et Radix/Veratrum nigrum L.)과 기생충(parasite)을 검색어로 하여 Pubmed에서 검색해보아도 유의미한 연구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물론 이러한 단편적인 사실만으로 그 정보의 진위를 가릴 수는 없다. 하지만 현대의 과학적 연구 중 일부가 문헌의 기록을 바탕으로 검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전제 하에, 부정확한 문헌정보는 연구과정에 차질을 빚을 수 있고 덧붙여 부정확한 문헌 해석 또한 현대 과학적 연구에 충분히 어려움을 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의 배경을 살펴보자면, 고대 본초서에는 '효능'이라는 단독 개념이 없이 주치, 효능이 혼용되어 있었다가 明清代부터 효능 용어를 분리시키거나 도출해내었다⁴⁾. 물론 본초의 '효능' 용어가 현대 본초학에서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만, 그 태생적인 한계로 인해 위의 예와 같은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때문에 이렇게 쟁점이 될 수 있는 효능 정보가 문헌상의 오류이거나 중의적 표현일 수 있다는 가설에 이르게 되었다. 문헌상의 오류는 제현석학들의 체계적인 고찰을 통해 바로잡히기를 기대해 보고, 본 논문에서는 효능 용어의 중의적 표현에 대하여 어떻게 접근해야 할 것인가 논의해보고자 한다. 따라서 효능과 주치의 연관성에 초점을 맞춰 '殺蟲'의 일례를 가지고 고찰해 보겠다.

재료 및 방법

본 논문에서 연구대상으로 삼을 데이터는 현재 구축된 한의 온톨로지 DB 중 본초의 효능, 치법 데이터이다. 각 용어는 교재별로 다음 부분에서 추출하였다.

『본초학』: 效能 主治란의 효능 용어('治' 이전 부분) 및 주치 용어

『임상본초학』: 效能 主治란의 효능 용어('~등의 효능이 있어' 이전 부분) 및 주치 용어

『신씨본초학』: 主治란의 효능 용어('治' 이전 부분) 및 주치 용어

그리고 '殺蟲'이라는 효능을 가진 본초의 효능, 주치 데이터와 '驅蟲'이라는 효능을 가진 본초의 효능, 주치 데이터를 분류해 냈다. '殺蟲'을 효능으로 가지는 본초는 총 35건 검색되었고, '驅蟲'을 효능으로 가지는 본초는 총 13건 검색되었으며 두 그룹의 교집합에 속하는 본초는 없었다(Table 1).

Table 1. Medicinal Materials Having Salchung(殺蟲) or Guchung(驅蟲) as an Efficacy

Medicinal Materials Having Salchung(殺蟲) as an Efficacy	Medicinal Materials Having Guchung(驅蟲) as an Efficacy
乾漆, 輕粉, 苦參, 南瓜仁, 狼毒, 露蜂房, 蘆薈, 綠礬, 大蒜, 大風子, 藜蘆, 密陀僧, 白礬, 白部根, 寶豆, 砒石, 蛇蛻, 山椒, 繡綫子, 松脂, 水銀, 靈砂, 藕節, 雄黃, 芫花, 硫黃, 樟腦, 皂角刺, 蒼耳草, 天名精, 葱白, 巴豆, 蒴藋, 海桐皮, 胡桐淚	苦楝皮, 貫衆, 雷丸, 蕪荑, 樺子, 檳榔子, 使君子, 石榴皮, 松葉, 阿魏, 羊路根, 川楝子, 鶴虱

그리고 각 그룹의 주치 증상을 나열하여 검색 빈도를 검색하였다. 이 때 검색 빈도를 word cloud 형태로 시각화하기

위해 WordItOut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적으로 고문헌 및 현대문헌 검색을 통해 근거를 보충하였다.

결 과

1. '殺蟲'을 효능으로 가지는 본초의 주치 데이터

먼저 '殺蟲'을 효능으로 가지는 35종의 본초의 주치에 대한 검색 빈도에 대해 조사해 보았다. 그 결과를 시각화한 것은 다음과 같다(Fig. 1).

Fig. 1. Word cloud of treatment target data of medicinal materials having Salchung(殺蟲) as an efficacy⁵⁾

의외로 가장 많이 검색된 주치증상은 '疥癬'으로서 총 9종의 본초(狼毒, 大風子, 藜蘆, 白礬, 蛇蛻, 靈砂, 硫黃, 皂角刺, 海桐皮)에서 찾아볼 수 있었고, - 악창개선(惡瘡疥癬), 개선창독(疥癬瘡毒)과 같이 분리가 되지 않은 주치증상까지 고려하면 더 많은 본초에 '疥癬'과 관련된 주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두 번째로 검색된 주치증상은 6건의 '瘰癧'이었다. '殺蟲'을 효능으로 가짐에도 불구하고 기생충과 관련된 주치증상이 드물게 보였다.

때문에 '殺蟲'을 효능으로 가지는 본초 중에서 주치증상에 '蟲'이라는 단어를 포함하는 것만 찾아보았다. 총 12종의 본초(乾漆, 苦參, 南瓜仁, 蘆薈, 綠礬, 大蒜, 白部根, 寶豆, 山椒, 雄黃, 天名精, 葱白)가 그에 해당하였고, 그 본초의 주치증상을 바탕으로 검색 빈도를 시각화해본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Fig. 2).

Fig. 2. Word cloud of treatment target data(including a term 蟲) of medicinal materials having Salchung(殺蟲) as an efficacy⁶⁾

하고 있는데, 관련된 기록은 『千金翼方』에서 '치아가 벌레 먹어 아픈 증상에 여로 가루를 구멍 속에 집어넣되 즈음 삼키지 말아야 하는데, 이는 효과가 매우 좋다[牙齒蟲痛, 藜蘆末, 內入孔中, 勿吞汁, 神效]'고 한 내용이 있고, 『肘後方』에서 '백독창이나 벌레로 인한 부스럼에 여로 가루를 돼지기름에 개어 바른다[白禿蟲瘡, 藜蘆末, 豬脂調塗之]'고 한 내용 등이 있다¹²⁾. 『證類本草』와 『本草綱目』이 『本經』의 내용을 공유하고 있지만, 『證類本草』에서 언급하고 있는 蟲의 실체가 모호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고, 『本草綱目』에서 언급하고 있는 蟲은 충치와 피부질환을 일으키는 벌레로 해석된다. 『中藥大辭典』에서는 '殺蟲', '殺蟲毒' 등의 정보가 보이지만 이것을 정확히 기생충과 관련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정보는 찾을 수 없었다¹³⁾.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그 효능의 해석을 어느 한 쪽으로 단정 짓기 힘든 경우이고 심지어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세 번째로 주치 정보에는 蟲과 관련된 증상이 보이지 않으며, 문헌 정보에서도 기생충을 치료하는 효능을 가진 것이라고 보기 힘든 본초를 찾아볼 수 있었다. 그 예로 輕粉을 들 수 있는데, 輕粉의 효능은 祛痰消積, 攻毒, 斂瘡, 殺蟲, 逐水通便이고, 주치는 疥瘡, 梅毒, 濕疹, 頑癬, 瘡瘍, 腫瘡, 痰涎積滯, 水腫鼓脹, 二便不利이다. 이와 관련하여 『證類本草』에서는 陳藏器的 『本草拾遺』를 인용하여 '피부질환을 야기하는 웜, 진드기 등을 죽인다[殺瘡疥癬蟲]'고 하였다¹⁴⁾. 또한 『本草綱目』에서는 『普濟方』의 내용을 인용하여 '풍이나 벌레먹은 것으로 인해 잇몸이 붓고 아픈 증상 및 피고름이 나고 벌레먹은 경우에는 경분 한 돈과 황련 한 냥을 가루내어 쓴다[風蟲牙疳, 膿血有蟲, 輕粉一錢, 黃連一兩, 爲末搽之]'고 하였다¹⁵⁾.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보면 경분의 효능에서 언급하는 '蟲'은 피부나 치아에서의 蟲을 의미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고, 그 외에 기생충과 관련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中藥大辭典』에서도 殺蟲이나 기생충 관련 정보를 찾을 수 없었고¹⁶⁾, 『中華本草』에는 현대임상연구, 부방(附方) 등의 내용에 기생충 관련 정보가 보이지 않고 효능에서 '외용할 경우 살충 효과가 있다'고 언급되어 있다¹⁷⁾. 즉 輕粉의 '殺蟲' 효능은 '기생충을 없앤다'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반면 '驅蟲'을 효능으로 가지는 본초의 대부분에 기생충과 관련한 주치 정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주치 증상에 기생충과 관련된 정보가 없는 松葉과 羊蹄根에 대해서는 『證類本草』, 『本草綱目』을 통해 관련 효능이 있는지 검색해보았다. 羊蹄根의 경우에는 『名醫別錄』에 '殺蟲'이라는 정보가 보이고, 『日華子』에서 '모든 충을 죽인다[殺一切蟲]'고 하면서 '양계근의 잎이 어린아이의 감병(疳病)을 일으키는 기생충을 죽인다[葉治小兒疳蟲]'고 하였다^{18,19)}. 반면 松葉의 경우에는 '殺蟲'이라는 정보가 松脂의 효능과 관련해서는 보이지만 松葉에 대한 내용에서는 관련 정보가 없었다²⁰⁾. 다만 『本草綱目』에서 '쌀벌레를 죽인다[殺米蟲]'는 내용은 찾아볼 수 있었다²¹⁾. 그러나 『中藥大辭典』에서는 『單放驗方醫療法選編』을 인용하여 '鉤蟲으로 인한 병을 예방한다'고 언급하였다²²⁾. 따라서 '驅蟲'을 효능으로 가지는 본초는 주치 정보 및 문헌 정보에 기생충과 관련된 정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고찰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볼 때, '殺蟲'이라는 효능 정보가 단일한 의미를 지니지 않을 것이라는 가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상당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殺蟲'의 蟲이 기생충을 지칭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의 확실하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부터 치아나 피부의 벌레 또는 균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면서도 기생충을 지칭하는 지에 대해서는 모호한 경우까지 그 스펙트럼이 다양하게 존재하였다. 결국 '殺蟲'이 '기생충을 없앤다'로만 정의될 수 없거나 '피부의 균을 없앤다', '충치먹은 데에 쓴다'와 같은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얘기이다. 따라서 '殺蟲'이라는 효능은 '인체 내의 기생충을 제거하는 것'이라는 사전적 정의에 다른 정의를 보충할 필요가 있겠다. 또 '殺蟲'이라는 효능이 주어졌을 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취사선택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부가적인 정보, 즉 참고할 수 있는 주치 정보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본초 효능을 번역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중의적 표현에 대해서는 정확한 근거를 들어 최대한 명확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생충을 없앤다'는 뜻으로밖에 쓰일 수 없는 경우라면 굳이 중의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보다 '驅蟲'과 같은 명확한 표현으로 대체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무엇보다 약재 온톨로지 DB가 현재 사용되는 교과서 기반의 자료임을 감안한다면, 정확한 교육을 위해 중의적인 표현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결론

이상 '殺蟲'이라는 효능이 있는 본초의 주치 정보 및 문헌 정보를 검토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1. '殺蟲' 효능이 있는 본초 중 기생충과 관련된 주치 증상 정보가 없는 본초가 있다.
2. 그러한 본초 중에 고전문헌 및 현대문헌의 내용에 기생충 관련 정보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피부의 균을 죽이는 의미나 충치 치료에 쓴다는 의미로 유추되는 경우도 있다.
3. '驅蟲' 효능이 있는 본초는 주치증상 정보나 고전문헌 및 현대문헌의 내용에서 기생충과 관련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특정 본초의 효능 용어가 다양한 의미로 쓰일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다시금 문헌 고찰을 통해 부족한 주치 증상을 보충하고, 단일한 의미로 쓰이는 것이 명백하다면 보다 확실한 표현으로 교체할 필요가 있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한국한의학연구원 주요사업 "한의 지식 포털 구축(K15512)"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습니다.

References

1. Jang HC, Kim JH, Kim SK, Kim CS, Bae SH, Kim AN, Eom DM, Song MY. Ontology for medicinal materials based on traditional Korean medicine. *Bioinformatics*. 2010 ; 26(18) : 2359-60.
2.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Korean Traditional Knowledge Portal. 2007 Dec 6[cited 2015 Apr 7]. Available from : URL : <http://www.koreantk.com/ktkp2014/disease/disease-view.view?disCd=D0004271&tempLang=en>
3. Oriental Medical Encyclopedia Compilation Committee. *Encyclopedia of Oriental Medicine* vol. 5. Seoul : Kyunghee University Publishers. 1999 : 5.
4. ZENG XF. Change of status of the efficacy in herbal medicine by time period. *Hubei J Tradit Chin Med*. 2008 ; 30(5) : 28.
5. Enideo. WordItOut. 2015[cited 2015 Apr 14]. Available from : URL : <http://worditout.com/word-cloud/781633>
6. Enideo. WordItOut. 2015[cited 2015 Apr 14]. Available from : URL : <http://worditout.com/word-cloud/781650>
7. Enideo. WordItOut. 2015[cited 2015 Apr 14]. Available from : URL : <http://worditout.com/word-cloud/781654>
8. Enideo. WordItOut. 2015[cited 2015 Apr 14]. Available from : URL : <http://worditout.com/word-cloud/781659>
9. Tang SW. *ZhongXiuZhengHuo-JingShiZhengLeiBei YongBenCao*. 1st ed. Beijing : China Press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2013 : 712-3.
10. Li SZ. *Bencaogangmu*. 1st ed. Beijing : People's Medical Publishing House. 1982 : 1100-1.
11. Tang SW. *ZhongXiuZhengHuo-JingShiZhengLeiBei YongBenCao*. 1st ed. Beijing : China Press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2013 : 665.
12. Li SZ. *Bencaogangmu*. 1st ed. Beijing : People's Medical Publishing House. 1982 : 1157.
13. Jiangsuxinyixueyuan, translated by Kim CM, Shin MK, Ahn DK, Lee KS. *The Encyclopedia of Oriental Herbal Medicine(translated into Korean)* vol.6. 1st ed. Seoul : Jeongdam Publishers. 1998 : 3763-8.
14. Tang SW. *ZhongXiuZhengHuo-JingShiZhengLeiBei YongBenCao*. 1st ed. Beijing : China Press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2013 : 266.
15. Li SZ. *Bencaogangmu*. 1st ed. Beijing : People's Medical Publishing House. 1982. : 529.
16. Jiangsuxinyixueyuan, translated by Kim CM, Shin MK, Ahn DK, Lee KS. *The Encyclopedia of Oriental Herbal Medicine(translated into Korean)* vol.1. 1st ed. Seoul : Jeongdam Publishers. 1998 : 206-9.
17. State Administration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Zhonghuabencao* vol.1. 1st ed. Shanghai : Shanghai Scientific and Technical Publishers. 1999 : 398-400.
18. Tang SW. *ZhongXiuZhengHuo-JingShiZhengLeiBei YongBenCao*. 1st ed. Beijing : China Press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2013 : 708-10.
19. Li SZ. *Bencaogangmu*. 1st ed. Beijing : People's Medical Publishing House. 1982 : 1352-4.
20. Tang SW. *ZhongXiuZhengHuo-JingShiZhengLeiBei YongBenCao*. 1st ed. Beijing : China Press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2013 : 777-81.
21. Li SZ. *Bencaogangmu*. 1st ed. Beijing : People's Medical Publishing House. 1982 : 1921.
22. Jiangsuxinyixueyuan, translated by Kim CM, Shin MK, Ahn DK, Lee KS. *The Encyclopedia of Oriental Herbal Medicine(translated into Korean)* vol.6. 1st ed. Seoul : Jeongdam Publishers. 1998 : 3222.